

경주 남산 불법 묘지로 몸살

신라인의 불심이 깃든 불국토로 사랑받는 세계문화유산 경주남산이 민묘(民墓)로 뒤덮여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형준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남산에 현재 2만여 기의 민묘가 들어 있어, 그 가운데 유적지 내에 분포한 무덤만도 1206기나 된다"며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국립공원이며 사적 제311호로 지정돼 있는 남산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불법 행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적지 내 현상변경은 금지돼 있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민묘는 해방 전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나, 근래에도 매년 100여기씩 무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민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한태 경주문화유적답사회장은 "무덤은 이미 경주남산의 익숙한 풍경이 됐다"며 "특히 배리삼존불 인근 지역은 공동묘지처럼 보일 지경"이라고 말했다. 봉분이 오래돼 가라앉아서 외관상 무덤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아 사실상 통계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경주남산 정창곡 삼화령 미륵삼존불 출토지에 만들어진 민묘. 사진제공=박형준 의원실

산으로 남산의 넓은 지역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 결국은 예산의 문제
경주남산의 민묘 문제에 대한 해법은 기존 분묘를 이장하고, 철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새 묘지가 조성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국 많은 비용이 들어, 결국은 예산문제로 귀결된다.

경주남산에서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55%에 달해 도유림보다 더 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유지의 민묘를 이장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통해 사유림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

도유림에 있는 민묘의 경우에도 이장이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 이장 결정이 내려도 무덤 주인공의 후손들이 스스로 이장하지 않는 한, 1기당 300~500만원에 달하는 이장 경비를 경주시가 떠안게 된다.

현재 상황으로는 야간 암매장을 막는 것도 문제다. 박형준 의원에 따르면 경주사적관리인원은 총 20여명. 이 가운데 남산 전담인원은 환경미화원 4명과 순찰직원 3명뿐이어서 상시적인 관리체계가 불가능하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윤철원 학예연구실장은 "조상 묘에 대한 민족적 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경주남산의 분묘문제를 짧은 시일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유적지내 1200여기 분포, 매년 100여기 늘어 절터·석탑 주변에 집중... 유구 훼손 우려

산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좋은 터'는 옛 절터와 일치하기 마련. 중요한 사적인 절터나 석탑 주변에 민묘가 집중 분포돼 있다.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는 1~2m 깊이로 땅을 파헤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묘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구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조계종문화유산발굴단(단장 탁연) 한 관계자는 "경주 남산처럼 문화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했던 곳은 표토만 걷어내도 유구가 나올 수 있다"며 "사신을 매장하는 과정에서 유구가 파손될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간 100여기에 달하는 새 무덤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단속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굴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경주시 한 관계자는 "지금의 인력과 예

■ 경관뿐 아니라 문화재 훼손 우려 커
박 의원에 의하면 경주남산 민묘의 전체 면적은 8.4km에 달한다. 경주 남산의 2%에 달하는 면적으로, 경주남산의 경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묘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이다. 경주남산에 무덤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남산이 명

금강산 신계사 상징 제 모습 되찾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금강산 신계사 터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삼층석탑의 해체·보수가 완료돼 안정을 되찾았다.

금강산신계사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송성·이하 복원추진위는)는 2004년 8월 해체한 신계사삼층석탑을 지난 9월 29일 조립에 착수, 10월 5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해체·보수는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해체 전 원형을 유지하여 보수하되, 부재가 결실돼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계사 주변의 석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모든 공정은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김홍식 전문위원의 감독 하에 진행했으며, 총무팀 사회부와 문화부가 기록을 맡았다.

신계사삼층석탑은 나팔여초 건립된 탑으로, 전쟁과



신계사 삼층석탑 수리전(왼쪽)과 수리후 모습.



신계사 삼층석탑 수리전(왼쪽)과 수리후 모습.

지난해 해체한 삼층석탑 보존처리 거쳐 조립완료

긴 세월의 풍상으로 상륜부가 결실되고 육개석이 파손됐으며, 기단의 갑석이 내려앉은 등 붕괴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에 신계사 복원불사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해체, 탐지발굴·보존처리·석탑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어느정도 제 모습을 되찾게 됐다.

복원추진위는 "11월초 추가로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남북관계 협의를 통해 파손이 심한 부재에 대한 추가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계사삼층석탑은 하층기단에 8위의 비천상이, 상층기단에는 팔부중상이 조각돼 있는 전형적인 증중기단의 삼층석탑으로, 9세기 유행한 양식을 띠고 있다. 발굴조사결과, 이 탑은 조선시대 후기 현재의 자리로 이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익순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28>

16G 낸드플래시

최근 한국의 반도체 회사에서 16G(기가) 낸드플래시(NAND Flash)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1G가 10의 약 9승, 즉 10억 제곱을 나타내므로 손톱크기의 반도체 칩에 160억 개의 비트(1혹은 0 정보를 기억시킬 수 있는 셈이다. 한 개의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8개의 비트를 사용하므로 대략 20억 개의 글자를 저장할 수 있다. 신문 한 장이 약 만자를 담을 수 있다면, 신문 약 20만장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다. 참으로 놀라운 저장 능력이 아닐 수 없다.

DRAM과 같은 기억 회로는 다르게,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을 꺼도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다. 따라서 배터리가 다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분자는 더 작은 원자, 원자는 전자와 핵, 그리고 핵 또한 수 많은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미립자가 모여주는 지휘일 뿐이다. 수 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몸 또한 마찬가지다. 생물학자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신호를 전달하고, 외부의 병원균에 대응하는 세포가 우주라고 할 만큼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그리고 세포들 간의 영향을 미치는 분자수준의 생화학적 현상이 우주보다도 더 복잡하고 오묘하다는 데 놀라고 있다. 마치 먼지와 같은 항하사에 우주 가 있는 것처럼. 낸드플래시 기억장치 또한 하나의

광활한 우주만큼 복잡한 세포세계 간단해 보이는 전자 역시 알쏭달쏭

달라도 정보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최근 디지털카메라나 MP3플레이어와 같은 음악저장 매체가 유행하면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낸드는 기억시키는 회로를 배열하는 방법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플래시는 정보를 지울 때, 마치 플래시 카메라를 터뜨리듯이 한 번에 다 지워버린다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금강경>에는 '항하사와 같은 수만 큼 많은 삼천大千세계'라는 표현이 나온다. 삼천大千세계가 우주를 표현한 것이므로, 갠지스 강에 있는 모래 수만 큼 많은 우주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존재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있다.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먼지들을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그 먼지는 우주의 별보다도 많은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분자가

비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를 사용한다. 전자를 트랜지스터에 저장하면, 트랜지스터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므로 이 변화 정도를 외부로 읽어내는 것이다. 간단하게 보이는 전자 또한 정확하게 어떤 논인지 알 수 없다. 과학자들은 그저 음전하를 가지는 단위 입자라는 것을 알 뿐이다. 100년 전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전자가 어떤 때는 파동과 같이 행동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알갱이와 같이 행동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존재를 이용해서 반도체 칩은 기억을 시키는 것이다.

가끔 자신의 존재가 초라하고 연민에 빠지게 될 때, 번뇌라는 느낌 또한 우주보다도 복잡한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오묘한 이치를 이해하도록 하자. 번뇌가 곧 불성이라는 옛 마스터들의



그림: 문병성

불기 2549(2005)년 근본불교수행도량 홍원사 낙성법회, 제2회 국제학술대회, 집중수련회 안내

근본불교수행도량 홍원사는 강서구 가양동 법당 낙성법회와 제 2회 근본불교 국제학술대회 및 집중수련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낙성법회와 함께 진행되는 국제학술대회와 집중수련회는 학문적인 연구와 실제적인 수행을 함께 마련하여,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호흡관 수행의 이론과 실천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아 래 -

1. 근본불교 수행도량 홍원사 가양동 법당 낙성법회
 - 1부 낙성법회
2005년 10월 28일(금) 오전 10시~12시
 - 2부 경로잔치 및 축하공연 ■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스님들로 구성된 악단)
 - 3부 영산재 ■ 오후 4시 30분 ~ 8시 30분
주지 동주스님 우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전수교육조교 지정 기념 법회

* 금반 홍원사 모든 행사에는 객스님의 서비 보시가 지급 되지 않습니다.

2. 제2회 근본불교 수행도량 국제학술대회
 - 1) 학술대회 주제 : 「입출식념경,의 수행이론과 실제」
 - 2) 개최 일시 : 2005. 10. 30 (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30분
 - 3) 개최 장소 : 근본불교수행도량 홍원사 (가양동)
 - 4) 학술대회 일정
오전(10시 ~ 12시)
기조법문: 반테 구나라타나 스님(스리랑카)
특별 수행법문: 파욱 사야도(미얀마) - 호흡관 수행법
오후(1시 ~ 6시 30분)
 - ◇ 발표자: 3명
발표 1:김재성(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입출식념경」에 나타난 수행법
발표 2:미산스님(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입출식념경」 주석서에 대한 이해
발표 3:산티카로법사(Liberation Park 지도법사, 시카고) : 연기법에 비추어본 입출식념 수행법
 - ◇ 논쟁자: 3명
재연스님(실상사 화엄학림 학과)
입출스님(델리대학박사과정)
입승택(경북대 교수)
 - ◇ 종합토론
회향식 인사발 학술대회 운영위원장 (성오스님)

장 소 :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226 근본불교수행도량 홍원사
전 화 : 02-2658-3100 전승 : 02-2063-3344
홈페이지 : www.santisukha.org 한글도메인: 근본불교 홍원사

3. 입출식념(호흡관)을 중심으로 한 집중수련회 일정
 - * 1차 스리랑카 반테 구나라타나 스님 지도(성오스님 수행진행)
2005년 10월 20일(목) - 26일(수) (6박 7일)
 - * 2차 미얀마 파욱 사야도 (지산스님 수행지도)
2005년 10월 30일(일) - 11월 3일(목) (4박 5일)
 - * 3차 미국 산티카로 법사 (태국 붓다다사 스님의 제자)
2005년 11월 4일(금) - 11월 7일(일) (3박 4일)

◇ 참가인원 및 수련회비
1차-총 100명 (숙식 남녀 각 20명씩 포함) 출퇴근 10만원 (숙식자 20만원)
2차-총 100명 (숙식 남녀 각 20명씩 포함) 출퇴근 8만원 (숙식자 12만원)
3차-총 100명 (숙식 남녀 각 20명씩 포함) 출퇴근 6만원 (숙식자 10만원)
◇ 집중수련회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05년 9월 20일 ~ 10월 15일
■ 수련회 접수 : (우)157-801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226
근본불교수행도량 홍원사
■ 전화 : 02-2658-3100 전승 : 02-2063-3344
참가회비 입금 계좌 제일은행 352-20-338066 예금주 : 이 조원

*수련회는 수련회비 입금 순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전화나 우편으로 참석 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후, 직접 혹은 온라인으로 수련회비를 송금하셔야 최종 접수됩니다. 온라인 송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신청 후 취소할 경우, 10월 15일까지 취소한 분에게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하지만 10월 16일부터는 수련회비가 환불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